

영화감독 장선우의 '나는 이렇게 들었다'

따타가따 여래
장선우 지음
물고기북스 펴냄
2만2천원

“따타가따는 붓다를 뜻하는 열 가지 명호 가운데 하나다. 따타가따는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빠알리어로 오고감이 없다는 뜻이며, 여래(如來)로 한역되어 왔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칭하실 때 이 명호를 쓰셨다.”고 시작하는 책은 진리를 찾아 헤메던 영화감독 장선우(사진)가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가르침에 환희를 느껴서 쓴 부처님이야기다.

장선우는 영화 《화엄경》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알프레트바우어상을 수상했으며, 금강경 사구계를 모티브로 한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제작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역시 불교를 소재로 한 이번 작품은 아직은 영화가 아닌 책(시나리오)이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모든 경전의 시작인 이 말의 주인공은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이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며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다. “스물다섯 해 동안 나는 부드럽고 성실한 몸으로 스승의 곁에서 시봉하였다. 그림자가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듯, 스물다섯 해 동안 나는 부드럽고 성실한 말로 스승의 곁에서 시봉하였다. 그림자가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듯, 스물다섯 해 동안 나는 부드럽고 성실한 말

음으로 스승의 곁에서 시봉하였다. 그림자가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듯,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며, 한창 배우고 있는 사람이며, 아직 지혜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던 스승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이다.”-〈장로계〉 아난다 편. 그렇다. 이야기는 오랜 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졌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해 번민했던 제자 아난다를 통해서 본 부처님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아난다의 이야기다. 구성은 1부 님바나(열반)를 찾아서, 2부 까벨라의 노을 또는 출리(出離), 3부 가버린 자 까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 고향인 까벨라성을 찾았을 때부터 우시나기라 사라나루 밀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40여 년의 시간을 그렸다. 부처님의 제자들과 당시 마가다국과 췌살라국이라는 강력한 두 국가의 왕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깨달음에 다가갔는지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부처님 시대의 원음인 빠알리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 그리고 수행 체계로서의 사띠빠타나(사념처 수행)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는 영화화를 우선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읽는 시나리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체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라고 그분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 영화화 되더라도 내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적당한 누군가 범담계 잘할까 바랄 뿐입니다.’ 2005년, 영화 ‘천개의 고원’이 중단되자



아난다를 통해 본 부처님
시나리오지만 영화 안 만들어도 괜찮아

장선우 감독은 제주도란 ‘먼 곳’으로 스스로를 보낸다. 남들은 ‘시련’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불연은 태어나기 전부터였을 거라고 말하는 그는 사춘기 때, 헤세의 《신타르타》에서 처음 부처님을 만났다고 했

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5년 쯤 되었을 때였다. 제주도에서 만난 그는 “진정한 스승을 만났고 방향은 이제 없을 거다.”고 했었다. 아마도 그 때가 부처님에 꼭 빠져있을 때였던 것 같다. 남들이 말했던 시련이 그를 더욱 부처님 가까이 가게 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을 다룬 작가나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도 부처님을 다룬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이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고행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치우쳐 있다면, 이 책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이후부터 열반에 이를 때까지의 여정을 담으면서 인간과 신들의 스승으로 살다간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170여개에 달하는 주석은 이 책이 얼마나 당대 묘사의 정확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는지도 말해준다. 뛰어난 사실성과 문학적 감동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을 알게 된다.

어둠속에서 메인타이틀이 떠오른다. “따타가따 1부-님바나를 찾아서” 기원정사, 어둠 속에서 누군가 경전을 읽는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아난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아직도 다향야 할 게 많은데 가버리시면 어떡하냐! 누가 가르쳐주시는 거? 나는 내일부터 누구에게 세숫물을 올려야 하나? 누구의 발을 씻어야 하나? 내일부터 누구의 침상을 정리해야 하나? 목 놓아 운다. 다가오는 비구하나. 세존께서 찾으신다고 전한다. 아난다,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다.” 장선우 감독의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시작된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소설로 보는 성철 스님

우리 옆에 왔던 부처

이창 지음 | 문화문고 펴냄 | 1만2천원



“영주야, 천렵 가자.” 성철 큰스님의 전기 소설이다.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임적하신 해(1993년)에 출간됐던 동명 소설에 큰스님의 60년대 이후,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행장을 덧붙인 증보판이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어낸 큰스님의 발자취를 소설을 통해 다시 한 번 따라갈 볼 수 있다.

스승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옆에 왔던 스승의 이야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저자는 “성철 스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고 말한다. 또한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 받아들으면 여전히 우리 옆에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며 증보의 이유를 말한다. “불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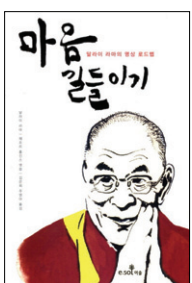
믿는다. 이 보다 나은 진리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버릴 것이다.”고 말씀하시던 성철 스님의 생애다. 불교에 귀의한 이후의 행적이 주를 이루며, 그밖에 불교에 귀의하기까지의 갈등과 극복 과정, 살아가면서 만난 귀인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긴 여름의 오후였다. 마을 아이들 넷이 밤나무 숲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큰 밤나무 아래 평상을 펴 놓고 누워 책을 보고 있던 영주(성철 스님의 속명)는 비스듬히 일어나 앉았다. “무슨 책이고.” 첫 장에서 스님의 육성이 들려온다. 바로 앞에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만큼 사투리가 심했던 스님의 육성을 듣는다. 아니 읽는다.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스님은 곁에 와 있는 듯하다. ‘왜 죽는가?’로부터 시작되는 문. ‘영원히 살 수 없는가?’로 이어진 구도. ‘길’이라고 하는 동서의 그 많은 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의 답을 찾아 그 옛날 왕자처럼 집을 나섰던 스님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이 세상에 오신지가 100년이 되었다. 스승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스님의 생애를 읽으며 우리 옆에 왔던 부처를 기억해 낸다. 박재원 기자

괴로움 벗게 해주는 달라이라마의 명상법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라마 지음 | 제프리 홀킨스 역음 | 김은희, 주영아 옮김 | 이출 펴냄 | 1만2천원



티베트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명상 수행법이다. 무지에서 벗어나는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명상 수행법을 제시한다. 명상 수행을 통해 ‘나’라는 것이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깨

틀어 보는 통찰력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해로운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제1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빠르게 알고 나면 제2장에서 왜곡된 인식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의문을 던지는 불교적 명상이며,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경

험을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실제 존재하는 것 위에 우리가 덧붙여 놓은 환상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인 맥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수행법을 알려준다. 제3장에서는 자신의 궁극적인 본성에 깊이 몰입하기 위해 집중과 통찰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만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만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지, 즉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 바를 구성하는지를 알게 한다. 그의 목표는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못된 개념 없이 정확히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파괴적인 마음과 괴로움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자비심을 키워나가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책은 그 자체로 티베트가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며,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조국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박재원 기자

치유와 위안의 시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김재진 지음 | 시와 펴냄 | 9천8백원



시 한 편 읽고 가자.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시인은 없다 · 1997)의 시인 김재진의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는 80편의 시가 실려 있다. 시인은 말한다. “아픔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좌절감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외로움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것이 휘두르는 칼날에 더 깊숙이 베이며 상처 날대로 상처 나 마침내 흡집투성이 모과처럼 향기가 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일었을 때 감동하고, 삶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말해온 그는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에서 세상 모든 다친 이들을 위로와 치유의 시편으로 보듬어 안는다. 자물쇠 하나 채우지 않은 방 안에서 문 열지 못한 채 마음의 감옥에 갇힌 이들과 조금 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시는 눈과 귀와 마음으로 토닥인다. /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 너는 나를 토닥거리다. /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 혼자 있어도 괜찮다. / 혼자 있어도 괜찮다. / 나는 자꾸 토닥거리다. / 나도 자꾸 토닥거리다. /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 ‘토닥토닥’ 전문.

책장 곳곳에는 QR코드가 있다. 코드를 휴대폰으로 읽으면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낭송하는 시와 힐링 뮤지션 자네토의 몽환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동영상 감상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1~7/1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크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공헌자사
5	달행이 나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사찰의 상징체계	지현	불광출판사
7	청춘출가	김제원 외	슬리
8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예담
9	천년사찰 천년술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10	해탈정엄론	김빠빠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깨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량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극

성지순례
고품격 여행상품
미얀마 성지순례

일 정 : 양곤 / 짜익티오 / 바간 / 헤호 7일 220만원
출발일 : 8월 20일, 9월 7일, 9월 15일 확정

- 중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35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